

진상규명 지지부진... '5·18 왜곡' 부른다



3 민간 차원 규명 시급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조사 활동을 마치고 1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의 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5·18기념재단(재단)이 진상조사위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진상 규명을 마무리하겠다고하며 민간조사를 통한 후속 조사 의지를 표명한 지도 1년여가 지났지만 조사는 커녕, 민간조사기구 설립마저 지지부진하다.

진상조사위가 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국가에 권고한 사항도 안제, 어떻게, 반영될 지조차 미지수다. 현재를 구한 과거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작성까지 모든 활동을 마치면서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핵심 의혹 6건에 대해 조사 미진으로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내렸다.

군의 발표경위와 발표명령자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암매장 여부, 행방불명자의 유해 행방 등도 발굴하지 못했다. "사격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모호한 결론이 나온 '헬기 사격' 여부, 군 기록의 조직적 왜곡 여부, 일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사실 확인 등도 과제로 남았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한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종합보고서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을 통해 후속 연구 및 교육을 전담하는 '5·18연구재단(가칭)'을 설립하고 지원할 것,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소재와 신원 확인 및 암매장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해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특히 민간 차원의 조사가 강력한 후속 조사 대안

민간조사 '총대' 멘 5·18재단 1년째 조사기구 설립 못하고 조사위 기록물 접근도 어려워 진실 왜곡·조장 발미만 제공 민·관·학 동참 후속 조사해야

으로 제시됐다. 진상조사위 활동 도중 조사위원들 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상 규명 여부가 갈린 사례가 많았다는 점, 암매장 사건의 경우 진상조사위가 암매장 사실 및 시신 발굴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불자와 유전자 일치하지 않았으며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는 점 등 독립성, 유연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하지만 정작 민간 조사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민간조사 '총대'를 메겠다고 나선 재단이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조사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5·18조사위 활동 및 국가보고서 분석위원회(분석위원회)'를 꾸리고 지난해 10월 진상조사위 활동을 점검한 결과를 내렸으며, 이달 말까지 '기록화 사업'을 통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했던 조사관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는 계획을 세우는 데 그쳤다.

일각에서는 재단의 민간 조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민, 관, 학이 동시에 후속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 단체가 국가 차원의 조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정 민간 단체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5·18 전문가들이 동참해 후속 연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민간조사위 자체의 실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지만, 만일 민간조사위가 꾸려진다면 하더라도 특정 기관이 기록물을 독점하면서 진행할 일이 아니다"며 "지역사회 전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민주묘지 오월영령을 추모하려는 참배객들로 붐비고 있다. 할아버지 묘소를 찾은 손자가 묘비를 끌어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체가 논의에 동참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후속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가 수집한 조사 기록물들이 모두 '비공개' 상태라 후속 조사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상조사위 기록물을 5·18기록관과 재단 등으로 이관하려는 요구에 관련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위가 4년간 수집한 서류 284만여쪽과 4.5TB 분량의 기록물이 대통령 기록관에 수장돼 있어 자료를 못 구하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제추진해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어야 조사가 미진했던 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후속조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파란 눈이 목격한 '80년 5월'

5·18 기록관 특별전... 내년 3월 31일까지 전일빌딩245

5·18 45주년, 여기는 꼭!

10월 19일까지 '소년이 온다' 전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5·18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서웠을까. 먼 이국에서 처음 접한 총부리와 군홧발은 어떤 생각을 들게 했을까.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특별한 전시를 연다.

기록관은 내년 3월 31일까지 전일빌딩245 기획전시실(9층·사진)에서 기획전 '증인:국경을 넘어'를 연다. 5·18 당시 광주에 체류했던 10대~30대 외국인 3명이 목격한 광주 항쟁기를 담은 전시다.

전시는 5·18을 경험하며 느꼈을 외인(外人)들의 공포와 두려움, 폭력에 노출된 광주 시민

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방인들이 실천했던 활동을 영상, 기록물 등 콘텐츠로 소개한다.

전시 인물 중 하나인 데이비드 돌린저는 1978년~1980년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영암 보건소에서 근무했으며 광주항쟁의 시작과 헬기 사격을 목격한 '푸른 눈의 목격자'다.

고(故) 아놀드 피터슨은 1975년부터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가족들과 양림동에 거주한 뒤 회고록 '5·18광주사태'를 출간하면서 알려졌다. 1970년 광주에서 태어난 제니퍼 헌틀리 또한 5·18 당시 미국 정부의 피신 권고에도 광주를 떠나지 않은 부모님과 함께 지역에 남은 인물이다.

오는 10월 19일까지 기록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소년이 온다'도 5·18의 진실을 엿볼 수 있는 전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바탕으로 5·18 광주의 진실과 오월 정신을 문학과 기록을 통해 조명했다.

한강의 소설 구조에 맞춰 구성된 프롤로그와 3개의 본 전시, 에필로그로 이뤄졌다. 민영량 일기, 김영철의 편지를 비롯해 김영택 취재수첩 등 기록물, 수습학생시인 어깨띠,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등 성명서 등도 전시돼 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 유급될 듯

각 대학 현황 9일 이후 공개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다음날인 7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유급 마감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한 이후 수업 참여율은 26%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일 의대 5곳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총 1916명에 대해 학칙에 따라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대상 학생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 건양대 264명이다. 다만 이후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학생들은 거의 전원 수업 복귀를 결정하면서 실제 제적 인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제적 처분과 달리 유급은 의대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만큼 유급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대로라면 의대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유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이 지나면 학생들이 원한다고 해도 복귀는 어렵다"며 "각 대학 유급 현황은 9일 이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경찰청, 전국 724개 구간서

경찰청이 전국 724개 구간을 선정해 안전띠 착용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6일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표어를 중심으로 홍보와 단속 등을 통해 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운전자나 승차자 사망자는 1601명으로, 절반에 이르는 약 800명 정도가 안전띠·안전도 미착용 관련 사망자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시속 48km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2.7배 커지고,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